

러 공군 훈련기로 MiG-AT기 주문

러시아 공군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10대의 최신예 제트 훈련기 VPK MAPO MiG-AT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신문은 보고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움직임은 MiG-AT기가 라이벌 Yakovlev Yak-130기를 제치고 공군 지정 제트 훈련기로 부상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동 항공기들이 인증이 된 직후 98년 하반기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공군이 MAPO의 훈련기를 선정함으로써 Yakovlev는 군용 항공기 설계를 그만두고 스포츠항공기와 여객기 설계국으로 남게될 것이다.

러시아 공군은 바르샤바 조약의 파기 이후에 점점 운용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Czech Aero L-39 Albatros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눈에 띄는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MAPO는 동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APO는 추가로 두 개의 MiG-AT 원형기가 올해 초에 있을 비행시험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의 항공기 기체는 피로 시험에 사용될 것이다.

다른 전투기 계획들이 공군에 의해 연기됨에 따라 MiG-AT기는 MAPO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獨 공군 토네이도 업그레이드

독일 공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상위치측정시스템과 레이저 관성항법장치(GPS/LINS)를 장착하여 파나비아 토네이도기의 항법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 승인위원회는 이번 정부 조달을 확인했으며 이 계약은 올해말에 Freiburg에 위치한 Litton사의 자회사인 Litefby사에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새로운 장비들은 GEC-마르코니사가 제작한 관성항법장치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토네이도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를 약 20배 증가

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2000년 이후 토네이도도의 기능적인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대항공기 방어 및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레이저 목표물 조준기와 stand-off 무기를 포함하는 지정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항법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현재의 항법 시스템으로는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정부 조달은 우선 독일의 공군과 해군에서 210대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것이다.

미 Comanche 헬기 '98 예산 삭감 모면

미 육군의 RAH-66 계획이 최소한 당분간은 국방 자원 위원회의 계획 취소 권고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MAPO MiG-AT기가 러시아의 공식 제트 훈련기로 부상하고 있다.

군사 및 항공우주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 계획은 최종적으로 6억불을 삭감한 '98 회계연도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 토의되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동 계획은 고려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대신에 미 육군은 보잉 및 시코르스키사와 다년간에 걸친 17억 달러 상당의 계약에 서명하였다. 이 계약은 적외 포착하기 힘든 정찰/공격용 헬기 개발에 대한 것으로 '97년부터 6대대의 Comanche 헬기가 인도되는 2002년 9월까지 유효한 것이다.

군의 고위 관계자들은 육군이 Comanche 계획을 계속하는 것이 현대화와 함께 군의 구조를 축소하려는 행정부의 지시와 작고 기동성이 있으면서 화력이 뛰어난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부의 운용 계획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합동참모회의의 관계자들은 육군이 10개의 현역 사단이나 Comanche 계획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둘 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佛, 대만에 미라지인도 60대규모 4월부터

프랑스는 대만에 판매할 미라

지2000(Mirage2000) 60대의 인도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대만 집권국민당 기관지인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같은 조기 인도는 자크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5월 중국방문시 중국이 미라지 판매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대만 공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美 휴즈사 AIM-9X 미사일 계획 수주

미국의 휴즈사가 그동안 고대하던 AIM-9X 수주 경쟁에서 승리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주 요인은 낮은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비용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국방부의 요구조건을 능가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레이디온사의 전략은 훌륭했지만 이 미사일의 예상 살상률(anticipated kill ratio)을 바꾸지 못했다고 전했다.

약 1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동 EMD(기술 및 생산 연구) 계약은 향후 20년간 10,000기 이상의 미사일 판매를 통한 50억 달러의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휴즈사의 한 간부는 밝혔다.

록히드마틴 팔콘을 엮두

록히드마틴사는 이스라엘의 엘타 팔콘 위상 배열(phased-array) 레이더에 자사의 C-130J 허큘리스 2 수송기의 공중조기경보(AEW) 개량형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동 업체는 엘타와 AEW C-130J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수출 면허를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서너달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2-3년간에 걸쳐 C-130J를 장착한 팔콘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센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AEW 개량형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노드롭그라만사와 공동으로 다른 레이더와 협조할 수 있는 핵심 임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의 목표는 노드롭그라만사의 E-2C에 맞춘 록히드마틴사의 APS-145 시스템으로 호주는 이미 AEW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APS-145를 장착한 C-130J를 후보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이다.